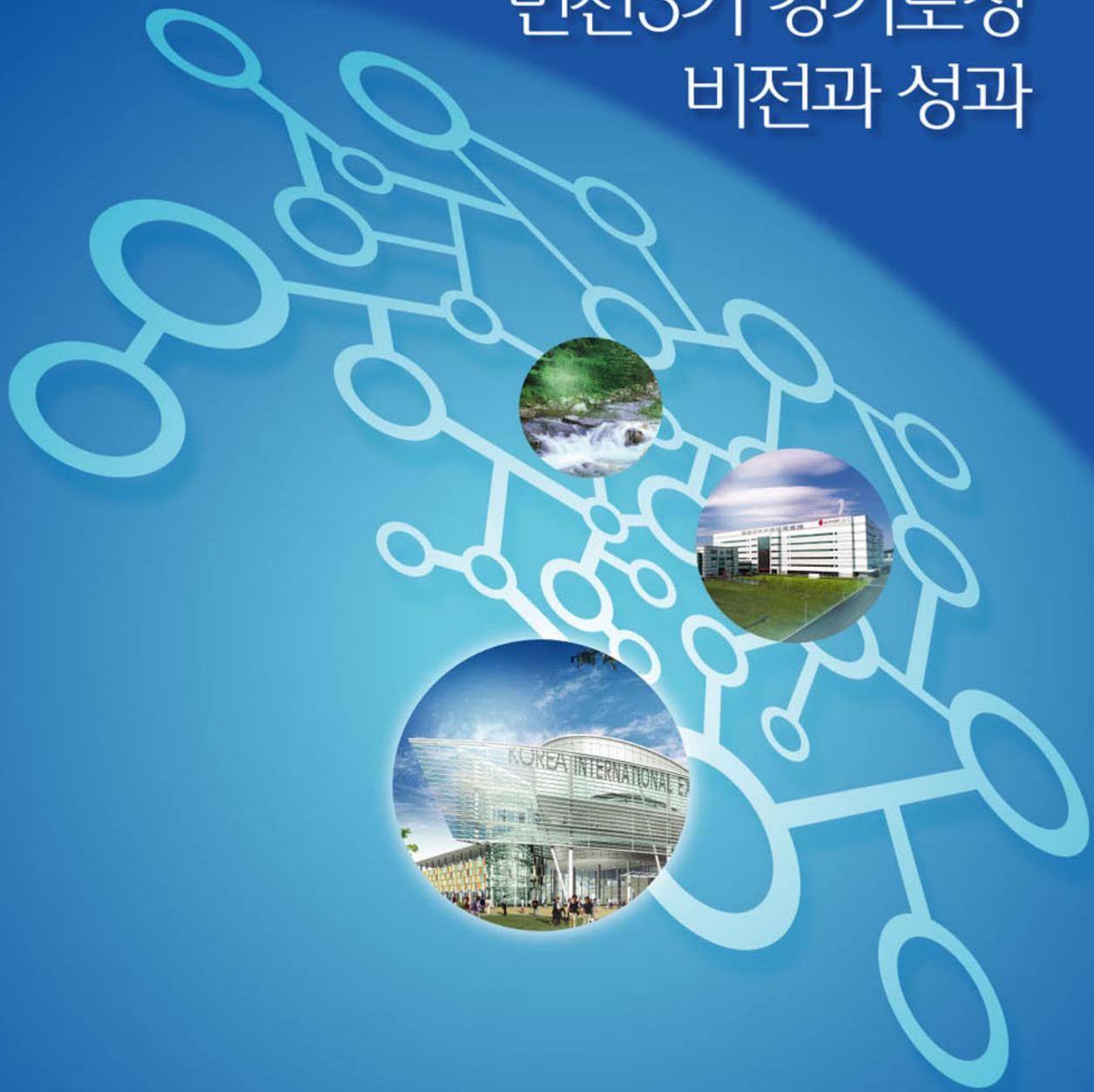


민선3기 경기도정 비전과 성과



경기도

민선3기 경기도정 비전과 성과

□ 글로벌 지방경영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 1

□ 지표로 본 민선3기 경기도의 비전 4

I . Global : 세계를 무대로 미래 개척 5

1.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해 수도권의 새 틀을 짍니다. 5
2.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이끕니다. 8
3. 차세대 성장동력! 경기도의 글로벌 R&D 허브에서 만듭니다. 9
4. 취업대란의 시대! 세계를 무대로 10만개 일자리에 도전합니다. 11
5. 세계를 상대로 경기관광과 한국문화를 마케팅합니다. 14

II . Competitive :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 15

1. 모든 길은 경기도로! 사통팔달의 선진 교통을 구현합니다. 15
2. 교육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가 가꿉니다. 19
3. 세계화와 지식경제 시대! 인재강국으로 앞서 갑니다. 21
4. 자족·쾌거·안전·테마의 선진 도시·주거환경을 만듭니다. 22
5.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경기문화! 도민들께 삶의 여유와 멋을 전합니다. 24
6.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25

III. Together : 세계를 향해 함께 전진 27

1. 분단의 현장에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27
2. 경기 북·동부 지역에 낙후의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을 줍니다. 28
3. 가난한 사람과 소외계층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29
4. 여성들도 뜻을 펴는 사회,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듭니다. 31
5. 시장개방의 파고! 농촌과 도시가 손잡고 함께 넘습니다. 32
6. 지역간 상생! 경기도가 바로 원조입니다. 33

부 록 : 민선3기 경기도정 비전과 성과 안내 지도

세계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

글로벌 지방경영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합니다.

○ 경기도는 동북아 교류 협력의 중심입니다.

- 차량 주행 1시간 내에 2천 5백만명,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10억 아시아 인구 거주
- TSR(시베리아횡단철도) · TCR(중국횡단철도) · 2대 국제공항 · 2대 무역항 등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
- 경의 · 경원선의 연결점이며 개성공단과 이웃한 통일과 신한반도 시대의 전진기지

○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 한국 인구의 21.2%, 지역총생산 20.1%, 중소기업 33%
- R&D시설 22.2%, 지식기반제조업 40.4%, 메카트로닉스 39.5%, 반도체 35.0%, 신소재 36.6%, 정보통신기기 45.2%, 생물산업 48.6%, 자동차 25.2%

○ 대한민국의 재도약, 경기도가 이끌어야 합니다.

- 지금은 세계의 대도시권이 첨단산업과 인프라의 무한경쟁을 펼치는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시대

- 전 세계 231개 국가들과 직접 비교해도 40위권에 드는 경기도의 경제규모를 20위권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지름길

구 분	단위	규 모	한국의 세계 순위	경기도의 세계 순위	주 요 국 순위
명목 GDP (2003)	억\$	1,171	11	36	미국(1) 108,816, 일본(2) 43,264, 독일(3) 24,007, 영국(4) 17,949, 프랑스(5) 17,480, 중국(7) 14,099
1인당 GNI (2003)	달러	10,762	50	54	룩셈부르그(2) 43,940, 노르웨이(3) 43,350, 스위스(4) 39,880, 미국(5) 37,610, 일본(7) 34,510, 중국(133) 1,100
무역 규모 (2003)	백만\$	70,211	12	40	미국(1) 2,029,654, 독일(2) 1,350,039, 일본(3) 854,893, 중국(4) 851,210
수출액 (2003)	백만\$	36,228	12	40	독일(1) 748,375, 미국(2) 724,006, 일본(3) 471,934, 중국(4) 438,370, 프랑스(5) 384,662
1인당 수출액 (2003)	\$	3,496	40	45	싱가포르(1) 33,914, 홍콩(2) 32,870, 룩셈부르그(3) 28,033, 일본(42) 3,710, 미국(51) 2,488, 중국(111) 340
수입액 (2003)	백만\$	33,983	14	41	미국(1) 1,305,648, 독일(2) 601,664, 중국(3) 412,840, 프랑스(4) 388,373, 영국(5) 388,282, 일본(6) 382,959
외국인 투자 (2002)	백만\$	759	34	61	룩셈부르그(1) 125,660, 중국(2) 52,700, 프랑스(3) 51,505 독일(4) 38,033, 미국(5) 30,030, 일본(18) 9,32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경기통계연보

○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세계로 열어 나갑니다.

- “세계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는 협소한 국내적 시야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것
-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성하는 중심가치
 - Global → 세계를 무대로 미래 개척
 - Competitive →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
 - Together → 세계를 향해 함께 전진



< 도정 이념의 체계 >

도정이념	세계 속의 경기도 Global Inspiration		
중심 가치	Global	Competitive	Together
도정방침	동북아 경제 중심	선진 교육·문화 쾌적한 삶의 환경	통일의 전진 기지
정책영역	첨단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수도권 발전전략 관광산업 육성	SOC 확충 교육·인적 자원 도시·교통·주택 문화예술 진흥 청정 환경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경기 북·동부 개발 복지·가족·여성 농업·농촌정책 지역간 상생

- 경기도는 세계를 무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풀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 나가는 ‘글로벌 지방경영’을 지향
-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를 향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도정 구현

지표로 본 민선3기 경기도의 비전

도정방침	계획지표	단위	연 도	
			기준년도	목표년도 (2006)
동북아 경제 중심	인구	천명	9,396(2001)	10,955
	취업자	천명	4,238(2001)	5,398
	GRDP(불변)	10억원 (억달러)	111,793(2000) 988.8	198,968 (1,530)
	1명당 GRDP	만원 (달러)	1,222(2000) (10,810)	1,892 (14,554)
	지식기반산업 총생산의 GRDP 비중	%	40.2(2000)	47.4
	IT 업체	개	4,151(2000)	7,447
	산업단지	개소	37(2002)	55
	재정규모	억원	94,396(2002)	123,558
통일의 전진기지	접경지역 1명당 GRDP	만원	690(2000)	1,18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백만원	9,000(2002)	20,000
	주택 보급률	%	92.4(2001)	100.0
	신규주택 공급량	천호	163(2002)	240
	장기임대주택 재고량	천호 (%)	28(2001)	170
	주민 1명당 공원면적	m ²	3.17(2000)	4.00
	도로연장	km	11,585(2001)	13,930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	km/천명	1.23(2001)	1.32
쾌적한 삶의 환경	전철 수송분담률	%	14.4(2002)	16.2
	대기오염도(NO ₂)	PPM	0.029(2002)	0.025
	하수도 보급률	%	70.4(2002)	83.4
	상수도 보급률	%	89.8(2002)	93.4
	관광객수: ·내국인 ·외국인	백만명	39(2002) 5(2002)	64 8
	공공도서관	관	58(2002)	105
	1인당 장서수	권	0.52(2002)	0.80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46.7(2002)	54.0
선 진 교육문화	인구 만명당 병상수	개	44.0(2002)	51.1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소	5(2002)	31
	장애인 복지시설	개소	102	203
	도민정보화 교육	천명	245(2002)	1,525

I . Global : 세계를 무대로 미래 개척

동북아 경제중심을 향해 수도권의 새 틀을 짍니다.

○ 동북아 경제 중심지 실현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대전환 추진

- 세계적 대도시권 육성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
 - 영국 70년대, 프랑스 80년대, 일본 80년대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
 - 프랑스(제2지식단지), 중국(중관촌), 대만(신죽단지), 말레이시아(MSC) 등은 수도권에 대단위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 수도권 규제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상황
 - 수도권 규제정책은 인구집중은 막지 못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난개발로 인해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만 악화
 - 불황 속에서도 수도권은 규제로 인해 3조 6천억원(2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에 달하는 첨단기업 투자가 빨리 묶여 있는 상태
- 경기도는 획일적 규제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의 종합적 정비를 추진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기업·주민에게 피해와 난개발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대체입법 추진
 - 경기도는 「수도권계획적관리기본계획」을 마련('04년 완료)하여 정부에 법정 계획화 건의
 -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 증설 및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업종 대기업 신설 허용 추진

○ 대 중국 교역 · 물류기지로서 평택 · 당진항 개발

- 평택 · 당진항은 우수한 항만 입지와 급증하는 물동량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항만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개발이 부진
- 평택 · 당진항은 '02년 대비 '06년 물동량 2배(4천 3백만톤→8천 2백만톤), 컨테이너 화물 약 4.6배 증가(6만 6천 TEU→30만 5천 TEU)가 예상되는 등 폭발적 수요 잠재력 보유
- 정부는 '89~'11기간 77선석 개발을 계획했으나 현재 12선석만 완료
- 항만개발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경기도는 도 예산 투입 등 지방 차원의 노력으로 '06년까지 23선석 개발 전망
- 완료 12선석 + 추진 11선석 (당초 계획 : '06년까지 52선석)
- 항로 개척, 항만 서비스 강화, 배후 물류단지 개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 노력
- 항로 개척 : '02년 4개 → '06년 15개
- 항만 서비스 : 항만 지원기관(CIQ) 합동청사 건립, 지방 해수청, 홍보관,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 법인(PCTC) 설립
- 복합물류단지 1단계 48만평 개발 추진, 평택~안성 고속도로와 수원~평택 전철화 완료, 포승~평택 산업철도 추진 중

○ 미래 ‘효자산업’의 요람으로서 KINTEX 건립 육성

- 고양 KINTEX(한국국제전시장)의 개장('05. 4. 29)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시 · 컨벤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
- 건립 개요 : 고양시 대화동에 1단계(사업비 2,315억원)로 '03년 4월 공사 착공, 2년만에 1만 7천평(COEX의 2배) 규모로 건립
- KINTEX 개장은 무역 1억 달러 당 전시장 면적이 중국(51.8m²)의 1/4에 불과 (한국 13.1m²)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의미
- 2단계 공사와 지원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면서, 적극적 마케팅으로 2010년 참관객 350만명, 가동률 55% 달성을 계획
- 전시장 개관 기념으로 지금까지 55회의 전시 · 컨벤션 유치 완료

○ 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 국제 평화도시와 국제 자유도시 건설

- 국제 평화도시 건설

- '02년 4월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평택에 국제 교류 협력의 중심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의 조화를 추구
- 고속철도와 평택항을 활용하고, 외국 교육기관과 첨단산업 시설을 수용, 500만평 규모(인구 약 16만명)의 광역 중심도시로 개발

- 국제 자유도시 건설

- 미군의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북부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 도시
- 500만평 규모(인구 약 24만명)의 대북교류와 지식산업으로 광역 중심기능을 수행할 신도시를 특별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발

○ 적극적 지방외교로 경기인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

- 중국·BRICs·EU·미주 등과의 통상·물류·투자유치·산업기술 협력 강화에 초점

- 현재 경기도는 세계 17개국 21개 지역과 교류관계를 발전
- 경기도-요녕성-가나가와현 간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
- 해외 협력망은 시장개척, 외자유치, 기술교류, 관광홍보, 문화교류 등의 든든한 기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이룹니다.

○ 5대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 국내 59개 대표적 산업 집적지 중 35개(60%)가 경기도 소재

경기글로벌 첨단클러스터 육성계획



- ① **LCD 클러스터 :** 남북협력 및 대륙 연계수송(TSR·TCR)의 거점인 파주 LG Philips LCD 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등 → 파주는 최신 기술제품인 7세대 LCD의 세계 최대 생산시설
- ② **IT·LCD 클러스터 :** 평택~화성~수원~성남 지역에 세계적 기업과 연구소 집적지 조성 → IT·LCD·반도체·나노기술 집적
- ③ **BIO 클러스터 :** 안산~화성~수원에 R&D와 생산거점 연계 바이오 벨트를 육성
- ④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서해안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육성
- ⑤ **도자산업 클러스터 :** 이천~여주~광주의 경기 동남부지역 중심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경기도의 글로벌 R&D 허브에서 만듭니다.

○ 2대 R&D 중심지 개발

- ① 광교테크노밸리 R&D 지구('04~'10년) → IT · 나노 · 바이오 ·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시설을 수용할 21만평 규모의 집적지 조성
- ② 판교 IT지구('04~'09년) → 대학원 · 연구소 · 벤처 집적시설을 갖춘 20만평 규모의 IT 비즈니스와 R&D 허브로 개발

○ 7대 핵심 연구시설 구축

- ① 나노소자특화팹센터('03~'06년) → 15,179평에 Clean Room · 연구 시설 · 나노 벤처기업 등을 수용, 초미세 기술 개발
 - 현재 수도권은 나노기술 관련 국내 인력·자원의 70%가 분포
- ② 무선 인터넷연구원('03. 4월 설립) →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무선분야 연구, '07년까지 R&D 사업비 180억원 투입
- ③ 경기바이오센터('04~'06년) → 9,500평 규모의 바이오 산업 산·학·연 기술협력 거점
- ④ 바이오 장기 생산·연구시설('04~'05년) → 1,940평 규모의 황우석 교수의 장기 이식용 무균돼지 생산 연구시설
- 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04~'07년) → 18,000평, IT · NT · BT 등의 이종 기술 융합에 의해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교육·연구기관
- ⑥ 경기테크노파크(운영중) → 반월 · 시화지역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영지원, 산학연 협력의 중심지
- ⑦ 경기대진테크노파크('04~'13년) → 3만여평, 경기도 · 포천시 · 대진 대학교 공동으로 경기 북부 산업기술 혁신 거점 개발

○ 21세기 신산업 기술개발 체제 구축

- 경기도·39개 대학·기업 공동 기술개발 사업 → 지난 3년간 도내 3만 3천여 중소기업의 15.8%인 5,282개 업체 수혜
-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2,785업체) △RRC(지역협력연구센터 395 업체) △GRRC(경기 RRC 335업체) △TIC(기술혁신센터 654업체) △테크노 파크 기술 지원(164업체) △디자인 개발(143업체) △ 산업패밀리 클러스터(650업체) △도자기술 개발(156업체)

취업대란의 시대! 세계를 무대로 100만개 일자리에 도전합니다.

- '04년 전국 일자리 창출의 60% 담당 → '05~'08년까지 100만개 일자리 창출 도전
 - 일자리 창출 실적 : '03년 13만 5천개(전국 3만개 감소) → '04년 25만개(전국 42만개)
 -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 '05~'08년간 매년 26만개씩 1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중
 - 일자리 창출 4대 전략 : △ 미래 전략산업 육성 · 첨단기술 확보
△ 튼튼한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 중기 지원 △ 적극적 실업대책



○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 첨단 외투기업 유치

- 외투기업 유치 실적 : 73개 업체, 128억 620만불
 - 외투기업 고용창출 효과(직접 2만 3천명 + 간접 5만 2천명 = 약 7만 5천명)
'04년 4,985명 → '05년 12,188명 → '06년 이후 58,000명 전망
 - 대규모 투자유치 사례 : LG · Philips LCD 공장 유치(100억불), 스미토모 화학(5억불)
- 외국인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 5개소 439천평(어연 · 한산, 추팔, 포승, 현곡, 장안) 완료 → 수요에 맞추어 연간 7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지속 공급 추진
 - 첨단 외국인기업 입주(예정) : 78개사, 1,113백만불

○ 일자리 창출의 바탕,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 전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 1조 1,200억원
 - 기술만 있으면 사업화는 OK : 기술평가에 합격한 신기술에 대해 자금지원을 확대, 신용보증도 확대 ('04년 8,500개 기업, 4천억원 지원)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 벤처 보육 서비스 :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03 준공 40개 업체 입주),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센터('05. 1. 준공)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 디자인 스튜디오 설치, 디자인 개발 지원
 - 도자산업 기술 개발 : 도자연구지원센터('05. 2. 준공), 요업기술원 이천 분원 ('06년 완공), 도예교육, 도자기 마케팅 등을 지원
 - 아파트형 공장 건설 촉진 : 53개소의 아파트형 공장 추가 건립으로 3,429개 업체가 자가공장 마련(현재, 총 93개소 5,600개 업체)
 -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 7개 단지 7,161개 업체 구축 완료
- 재래시장 활성화 : 5개년 계획 연차별 지원('03-'04년 35개 시장, '05년 12개 시장), 공동 물류창고 건립(2개소)

○ 일자리 창출의 노하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란? : 내수침체 장기화와 취업난에 대응, ’03. 10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8대 시책」을 확정 추진하면서 시작됨

< 8대 시책의 기본 방향 >

- 민원 개선: “왜 해주었나?”에서 “왜 지연되었나?”로 민원감사 방향 전환, 기업 애로 옴부즈만, 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기관협의체 운영 등
- 기업활동 지원에 도청 전체 부서가 참여 관리카드 운영 : ’05. 6월 현재 총 134건의 애로 ·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우수 사례 :
 -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 기업 진입도로를 우선 건설함으로써 고객 감동과 투자촉진 → 5개 사업 완료(현대기술연구소, 삼성전자 기흥 IC, 용인 델파이, 화성 팔탄공장, 김포 씰마스타), 8개 사업 추진 중
 - 시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적시행정 : 파주 LG-Philips LCD 산업단지 조성 기간의 경우 통상 4년을 13개월로 단축, 치열한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7세대 LCD 생산에서 기업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벌어 준 적시행정

○ 일자리 창출에 도민 · 기업 · 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 청년층 취업지원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공급 : 산 · 학 · 관 협력사업
- 구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 ‘경기청년뉴딜’
-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및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 관-학-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체결(’05. 3. 24), 道-벤처협회 ‘1사1인 채용 협약’

세계를 상대로 경기관광과 한국문화를 마케팅합니다.

○ 한국 관광의 도약을 준비하는 「2005 경기방문의 해」

- 경기 관광은 한국 관광을 견인할 잠재력 보유
 - 관광산업은 외화가득률(88%)이 반도체(43%)의 2배가 넘지만 한국 관광 산업의 GDP 비중(4%)은 선진국(10%대)의 절반도 안돼
 - 한국 관광의 도약을 위해서는 고려·조선의 천년 문화와 풍부한 역사유적, DMZ, 첨단산업 등 경기도의 관광 잠재력 극대화가 필요
- 경기도는 관광 산업의 일대 도약을 위한 전기로 정부 및 각계 도민과 힘을 모아 「2005 경기방문의 해」를 기획 추진 중
 - 목표 : 연간 관광객 총 연인원 6,900만명, 부가가치 3조 4,900억 원, 25만명 고용효과 달성
 - 손님맞이 준비 : 2002년부터 시설, 관광종사자, 통역, 안내 등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옴
 - 인기 관광상품 개발 : 10대 축제와 50개 지역축제를 준비하고 연계상품 개발, DMZ·스키·한류·KINTEX·Edu-tour·체험관광 상품 개발
 - 대대적 홍보 : 도내 각계와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순회 홍보활동 전개

○ 한국 관광과 문화 마케팅의 중심지 조성

- 2010년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 수도권 교통의 요지인 고양시에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
 - 2010년 외래 관광객 객실 수요 예측 : 16,864실 부족 (현재 12,000실)
 - 2010년까지 고양 일산에 30만평, 6천실 규모의 복합관광 테마파크 조성
- 관광문화단지의 테마를 「한류」(한류우드)로 설정 개발함으로써 외래 관광객 수용과 함께, 최근 동아시아의 한류 바람을 불잡아 두고 지속 발전시키는 한국판 헐리우드로 육성

II. Competitive :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

모든 길은 경기도로! 사통 팔달의 선진 교통을 구현합니다.

○ 경기도 전 지역을 1시간 통행권으로 묶는 도로계획 추진

-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염어 1시간 이내 통행권 (고속도로 진입 15분 + 고속도로 주행 30분 + 목적지 도달 15분) 실현
 - 고속도로(6×4) : 동서 6축, 남북 4축 950km 목표, '06년까지 186km 추가 건설
 - 간선도로(8×9) : 간선도로망 1,767km 목표, '06년까지 246.1km 건설
- 지역간 접근성 제고와 시·도간 광역도로망 정비
 - 보조간선도로망(25×44) : 1,860km 목표, '06년까지 418km 건설
 - 시·도간 광역도로망 : '06년까지 23.6km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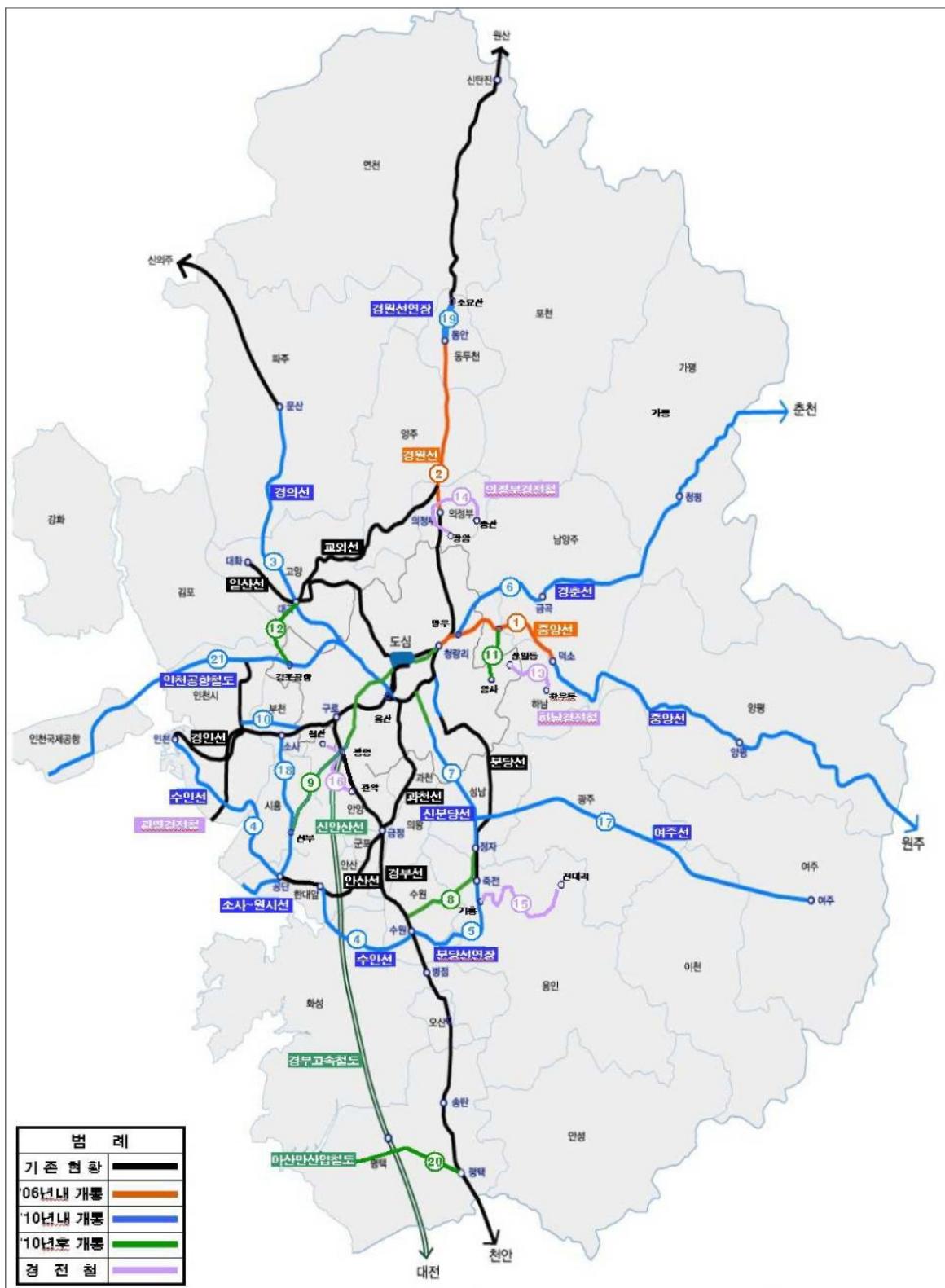
○ 교통 인프라의 근간으로서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경기남부 9개 노선, 경기북부 8개 노선 등 2015년까지 9개 철도망을 확장하고, 2020년까지 8개 노선 신설 추진
- 경기 순환철도 구축을 목표로 '08년까지 분당·수인선 완공
- 2010년까지 민자에 의해 용인·광명·의정부 등 3개노선 경전철 건설

○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의 교통난 및 상습 정체구간 우선 해소 추진

-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교통난 해소사업 :

경기도 철도 네트워크



* 자료 출처 : 수도권 광역 교통 5개년 계획

- '08년 까지 총 9개 노선 13개 도로망 91.8km 확·포장 (현재 3개 노선 완료, 6개 노선 공사 중, 4개 노선 추가 추진 중)
- 경부고속도로 한남~기흥 구간 대책 : 단순 확포장과 우회노선 신설 방안 등을 검토 중
- 죽전·풍덕천 사거리 교통개선 : 도로 확장, 신설, 고가차도 등 11개 사업 추진 중
- 전철망 확충(분당선 연장 조기 개통, 신분당선 수원 연장, 기흥~에버랜드 경전철 건설), 버스전용차로제 등 시행

- 상습 정체구간 해소사업

- '06년까지 도내 55개 상습 정체구간 해소(현재 19개소 완료)
- 수도권 남부 지역(수원, 성남, 용인) 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
- 교통 혼잡 지역 해소 대책 추진(의정부, 평택, 안성, 이천, 동두천)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

○ 대중교통 서비스의 3대 키워드, ‘편리’·‘정시’·‘필요’

-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 서울·인천과 협력하여 서울 도심을 한번에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 운행 (현재 수지↔강남, 수지↔광화문, 안산↔영등포 운행 중)
- 고급 버스,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저상 버스 도입
- 환승할인제 도입 : 경기도 버스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으로 확대 추진
- 버스안내 정보시스템(BIS)/버스관리시스템(BMS) : IT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제공함으로써 빠르고 안전한 교통 구현
→ 버스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로 도착시간 예고 서비스 제공

- ‘정시성’을 보장하는 믿음직한 대중교통 서비스

- 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버스 우선신호제 도입 → 일산~서울 시계(덕은교) 구간은 전용차로와 버스 우선신호를 활용 소요시간 9분(39분→30분) 단축
- BRT 구축 : 일산~수색('06년), 금정역~구로공단역('07년) 등 12개노선 단계적 추진

- 버스노선 공영화 : 공공재정 부담을 해서라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수익성 중심의 굴곡노선 개선 ('06년 2개 시군 시범 시행 후 확대)
 -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 광역심야버스 운행 : 현재 13개 노선 2시간 연장 운행 중, '06년까지 20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행 노선도 개설 계획
- 수도권 전철 연장운행 : 국철 2시간, 서울 지하철 50분
- 환승센터 구축 : 간선 급행버스(BRT) 연계 환승센터와 죽전휴게소 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신도시 계획시 환승센터 건설 의무화



교육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가 가꿉니다.

○ 농어촌 · 중소도시에 희망을 심는 「좋은 학교」 육성

- 도내 23개 시 · 군, 비평준화 지역에 거점 학교 육성

- 지원내용 : 도서관, 기숙사, 어학실, 문화공간, 원어민교사, 특기적성교육 등
- 우수 신입생 증가(내신 상위 10%) : 28% 증가('03년 대비)

○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추진

- 6학급 이내 소규모 초등학교 50개교 지원

- '03년에 비해 '04년 신입생 수 30%(130명), '05년 신입생 수 39%(171명) 증가

○ 평준화에 의해 제한된 교육 선택권을 넓히고, 도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목고 벨트」 조성

- 도내 8개 권역별로 과학 · 외국어 분야의 특목고 벨트 조성

- '04년 10개교 → '06년 16개교 → '07년 이후 27개교 이상으로 확대

○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한 실업계고 · 과학고 지원 확대

- 기초과학 활성화와 과학영재 육성,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교육

- 과학 선도학교 육성(20교), 과학고 활성화 사업(2개교)
- 실업계고 특성화 · 산학협력 사업(12개교), 특성화고 내실화 사업(6개교)

○ 교육과 커뮤니티의 복합중심 시설, 도서관 확충

- '06년까지 전국 최초 학교도서관 100% 설치 지원

- 학교도서관이 없는 243개 학교에 도서관 설치, 사서 지원, 장서 확대

- '06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05개로 확충('02년 58개), 인구 10만명당 1개 도서관 운영

- '06년까지 어린이도서관 17개 신설(현재 전용 1관, 겸용 67관), 도서관 정보 과학기능 강화

○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복지 강화

-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통해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 602개 병설유치원 유아수 155%, 학급수 130% 증가('03년 대비 '04년)
-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전국최고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보조원 120명 지원으로 도내 특수학급당 보조원 비율 50% 달성(전국평균 31%)

○ 교육의 다양한 길을 개척하는 「대안교육」 지원

- 대안교육은 입시위주의 기존 교육문화를 벗어나 체험·창의·인성을 길러주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진로를 열어 줌
 - 대안학교 : '02년 3개 → '03년 6개 → '06년 10개소
 - 공공 청소년 쉼터 : '02년 1개 → '03년 5개 → '06년 11개소

○ 공교육 환경의 지속적 개선

- '06년 1,860개로 학교 증설('03년 1,711개) → 과밀학급 해소
- '05년 3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개교로 매년 500여명의 경기도 정체성을 갖춘 우수교원 양성으로 교원부족 해소
- 학교급식·교통사고·폭력 음란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세계화와 지식경제 시대! 신재강국으로 앞서 갑니다.

○ 세계인 양성의 세계일류 모델, 「영어마을」

- 세계 언론이 주목한 현장체험 영어교육의 모델, 「영어마을」
 - 안산캠프 : '04년 8월 개원, 200명 수용, 시범모델
 - 파주캠프 : '06년 3월 개원, 500명 수용, 표준모델
 - 양평캠프 : '08년 3월 개원, 200명 수용, 친환경 모델
- '03년부터 4회의 방학 영어캠프 운영
 - 총 5,300명 수료(20%는 저소득층 자녀 무료연수), 참가자 98.7% 만족
- 사이버 영어마을 : 33만명 이상 회원 가입, 136만회 이상 이용
- 영어 공교육 강화 : 원어민 교사 확보, 영어교사 연수 등

○ 첨단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기능인력 양성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산·학·관 협력 기술인력 양성
 - 기능대회 입상자, 실업계고 출신 지원 및 이공대 실습 지원
- 실업계고 및 특성화고 지원 육성
 - 도내 127개 실업계고(92,311명)에 대해 기업 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
 - 도내 6개 특성화고의 실습시설과 산학협동 지원

○ 지식 혁신의 원천을 강화하는 「경기과학기술」 발전 지원

- 과학기술인 양성 : 장학사업, 해외연수, 경기과학 멘토, 과학교육 기자재 지원, 실습 지원 등
- 과학문화 확산 : 경기과학축전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08년 개원)

자족·쾌적·안전·테마의 선진 도시·주거환경을 만듭니다.

○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 자족적 도시개발

-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과 직장이 확보된 적정 밀도의 공간구조 실현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관리로 주민불편 해소·환경보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
 - 1단계 사업('01~'05년 28지구) 완료, 2단계 사업('05~'10년 20지구) 추진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 신도시는 계획단계부터 광고물 표시기준을 적용 관리, 기존 시가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도시경관 향상 유도
-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
 - 환승주차장 (6개소 조성완료 → 5개소 계획), 공영주차장 (35개소 조성완료 → 52 개소 계획)
 -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 추진

○ 안전한 지역사회 여건 마련

- 재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 상황관리
- 소방력의 연차적 확충으로 소방 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 소방력 확충('02→'06년) : 소방서 25→32개소, 소방파출소 126→170개소, 소방 공무원 3,434→5,358명, 소방차량 837→1,294대
 - 가족 119체험 캠프 운영,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비상설 특수구조대 운영, 노인구급 전담 Silver Ambulance, 모바일 독거노인 응급구조 관제시스템 구축

○ 이 분야에서는 여기가 최고, 테마도시 개발

- 특정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테마도시 개발로 장소 마케팅 (place marketing) 효과 극대화
 - 부천 상동 신도시에 영상과 문화산업의 한국 최고를 지향하는 도시로 재편
 - 삼성전자의 명성을 함께 하는 동탄 첨단 IT 신도시 개발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한국 최초의 첨단 R&D 도시의 모델 광교테크노밸리
 - 수원 이의동·용인 상현동 일원 335만평에 2010년까지 첨단 R&D와 충분한 녹지공간 및 기반시설을 갖춘 자족적 시범도시 건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경기문화! 도민들께 삶의 여유와 멋을 전합니다.

○ 경기도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정비 · 복원 · 계승 · 발전

- 경기도 역사 문화의 집대성과 재조명을 통한 정체성 확립

- 실학현양 : 실학축전 개최('05년) 및 실학박물관 건립(남양주 '07년 완공)
- 효사상 계승 : 효행원 건립(화성 '07년 완공)
- 경기도사 편찬, 역기도 역사인물 편찬, 한성백제 총서 발간 등

- 세계적 문화유산의 복원 정비

- 남한산성 : '06년 완료, 성곽 · 행궁 복원 등
- 수원화성 : '10년 완료, 동장대 정비, 화성행궁 복원 등
- 양주 회암사지 : '08년 완료, 유적 정비, 복원 설계 추진
-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 '09년 완료, 임시유적관 건립 등

○ 문화 인프라 확충과 도민 속으로 찾아 가는 문예활동 지원

- 문화 인프라 확충

- 도립국악당 : '04. 6월 개관 → 경기도박물관 · 에버랜드 · 민속촌 · 백남준미술관 등과 연계한 테마관광 권역화, 어린이 박물관 건립 추진 중
- 백남준 미술관 건립 : '07년 완공 (용인시 상갈리)
- 도립미술관 건립 : '06년 완공 (안산시 초지동)
-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 추진
- 한국 만화영상산업 진흥원 건립 :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및 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연계 문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경기 디지털콘텐츠 진흥원 육성 : 문화 콘텐츠산업의 발전소

- 도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모세혈관 문화운동 전개

- 학교 음악회, 이동 예술무대, 장터 음악회, 경기 예술교육 Mentor 프로그램 등 운영

건강한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 2,3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 팔당 상수원을 1급수로
 - 2010년까지 4조 2,889억원이 투자되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으로 팔당 수질을 지속 개선
 - 목표수질 : '05년 $1.3\text{mg}/\ell$ → 2010년 $1.0\text{mg}/\ell$ (1급수는 $1.0\text{mg}/\ell$ 미만)
 - 정책수단 : 환경기초시설 확충, 오염총량제 도입,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주민 지원사업으로 자발적 수질보전 유도
 - 강원·충북과 수질개선 공조, 샛강별 수질관리,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 기술을 지원하고 오염 처리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 환경을 지키는 「환경공영제」 확대
 - 환경공영제란?
 - 기술·비용 부족으로 오·폐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축산농가(BOD 기준 한강 오염의 48% 추정)와 배출업소에 처리기술과 비용(60% 자체 부담)을 지원하여 오염 처리율을 높이는 제도
 - 3,363개소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축산폐수 수거차량 및 운반비 지원
- 도시지역의 하천 살리기와 수돗물 품질 개선
 - 도내 주요 하천을 죽음의 하천에서 물고기가 노는 3급수(BOD $3\sim6\text{mg}/\ell$)로 살려내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 안양천(BOD, mg/ℓ) : '01년 24.2 → '04년 7.2 → '10년 6.0 → '20년 4.0
 - 경안천(BOD, mg/ℓ) : '01년 5.7 → '04년 5.2 → '10년 4.0 → '20년 3.5
 - 황구지천(BOD, mg/ℓ) : '01년 37.0 → '04년 10.1 → '10년 8.0 → '20년 4.0
 - 신천(BOD, mg/ℓ) : '01년 17.3 → '04년 11.8 → '10년 6.0 → '20년 4.0

-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을 마련·시행, 하천 제 모습 찾기 사업 전개
-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 정수, 수도관, 수질검사, 서비스 품질향상의 4대 과제 중점 추진

○ 오염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 질 달성

- 개선 목표와 저감 대책
 - 미세먼지(PM10) : $68\mu\text{g}/\text{m}^3$ ('01년) → $55\mu\text{g}/\text{m}^3$ ('07년) → $40\mu\text{g}/\text{m}^3$ ('12년)
 - 이산화질소(NO₂) : 30ppb('01년) → 27ppb('07년) → 22ppb('12년)
 - 저감 대책 : 사업장 오염 총량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오존 발생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 대책 등 추진

○ 녹지 공간 확충과 생태계 보존

-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대대적 전개
 - 매년 오산시(42.7km^2)와 비슷한 면적의 산림이 사라지고(41.2km^2) 있으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5.6m^2)도 선진국(10m^2)의 1/2 수준에 불과
 -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제정('04. 6월), 경기녹지재단('05. 3월)을 설립하여 민·관의 파트너쉽으로 나무심기 도민운동 전개
 - 4대 녹지축을 설정하여 녹지 훼손을 예방하고 단절부분 복원
- 도민의 웰빙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공원·휴양시설 확충
 - 학창시절의 꿈과 추억이 자라는 「학교 숲」 조성 : '03년 37개교 → '04년 118개교 → '05년 193개교 → '06년 250개교
 - 연인산 도립공원, 시흥·의왕·양평 생태공원, 용문산·칼봉산 휴양림, 오산·황학산 수목원, 가평 「잣 향기 푸른 교실」
 - 도시공원 조성 확대 : '14년까지 1인당 도시공원면적 6m^2 달성

III. Together : 세계를 향해 함께 전진

분단의 현장에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속 추진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와 기금 마련, 도민참여 기반 강화
- 인도적 지원 → 농업·문화교류 → 경제협력의 3단계 추진
 - 농기계·치과장비 지원·식품공장 설립 합의('04. 4~8월)
 -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 체결('05. 4월), 벼농사 시범농장 조성사업·황해북도 농자재 지원

○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접경지역 개발

- 접경지역(7개 시·군, 46개 읍면동 2,412km²)을 대상으로 2조 4,418억 원 규모의 41개 개발사업 추진
 - 파주 경협단지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대책, 통일생태교육기관 건립 등
 - DMZ 관광개발, 도라산 평화공원 조성, 산정호수, 한탄강 관광개발 추진

○ 평화와 생명의 한마당 세계평화축전 개최

- '05. 8. 1~9. 11 임진각, 헤이리 마을, 파주 출판도시에서 개최
 -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 평화를 주제로 하는 민간 주도의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 개최

경기 북·동부 지역에 낙후의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을 줍니다.

○ 경기 북·동부 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요소인 도로·철도망 조기 확충 추진

- 민간 투자에 의한 고속도로망 조기 건설과 간선 도로망 확충
 - 일산~퇴계원 '08년, 서울~춘천 '09년, 서울~동두천 '10년, 서울~문산 '10년 개통 추진
 - 서·북부 광역 간선도로망(제2 자유로, 자유로 등) 확충, 중·동부 지역 광역교통 대책(양주, 남양주 등) 추진
- 전철망 지속 확충
 - 경의선 '08년, 경원선 '06년, 의정부 경전철 '10년 완료

○ 지역 거점도시 개발과 전략적 산업육성

- 남북교류 배후 지원도시 개발
 - 파주시 문산읍·장단면 일원 300만평 규모 배후도시 2단계 개발 추진
- 산업단지 조성 및 R&D, 기술지원 기능 강화
 - LCD 단지 70만평 개발 : 월롱 본단지 + 당동·선유 협력단지
 - 양촌, 남면, 동두천2, 황지, 출판문화단지 등 산업입지 확충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섬유·염색산업 기술연구센터 건립

○ 낙후지역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특화사업 추진

- 북·동부 지역 9개 시군에 대해 2년간 총 2천억 원 규모 투자
 - 포천(포천석 아트밸리), 동두천(싸이언스 타워), 연천(역사 문화촌), 여주(야생화 생태단지), 양주(침단섬유), 가평(천지연 공원), 양평(전통 산촌마을), 안성(안성마춤), 하남(애니메이션 벤처)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 교육특구 : 파주(국제학교, 대학원 유치 등)
 - 관광특구 : 포천(산정호수), 연천(고대산 안보), 가평(호명호수 휴양레저)

가난한 사람과 소외계층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만 6천명(전국 최대), 차상위 계층 41만 6천명, 빈곤층 보호와 빈곤 탈출 지원
 -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폭과 보호의 범위를 확대
 -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찾아 지원, 출산 비용과 의료비 지원 확대
 - 차상위 계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인간개발, 자활 서비스 강화
- 특수 영역별 복지수준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추진
 - 경기도 We Start 마을 조성 및 교육복지 추진
 -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보건소, 병원, 사회복지관, 보육센터, 학교, 동사무소 등)가 협력하여 가난의 대물림 방지
 - 경기도 We Start 마을 : 성남시 목련1단지, 안산시 초지동, 군포시 산본1동 양주시 회천2동 등 7개 마을 지정 운영
 - 21,320명('04년)의 빈곤층 아동·청소년에게 취업 학원비, 대학 등록금 추가 지원
 - 향후, 교육복지특구 시범지정 운영
 -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02년 102개소 → '06년 203개소
 - 장애인 직업재활(자립작업장)시설 확충 : '02년 58개소 → '06년 72개소
 - 장애인이동 교통수단 확충 : '02년 112대 → '06년 166대
 - 자폐아 전문치료센터 : '02년 2개소 → '06년 6개소

-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기반 확충
 - '06년까지 시군당 1개소의 치매·와상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립
 - 노인복지회관 확충 : '02년 26개소 → '06년 46개소
 - 취업 희망노인 일자리 제공 및 자원봉사 활성화 : 노인 취업지원 알선 센터, 노인 자원봉사센터 확충 및 노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 보건·위생 서비스 개선

- 공공보건 강화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보강 및 서비스 체제 강화
 -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영·유아 기초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자 서비스
 - 팜뱅크 설치 운영 : 제약회사, 약국 등의 기탁을 받아 의료 소외계층에 대해 의약품 무상 제공
- 도내 19만개 위생업소의 식품·공중위생 수준 선진화
 - 부정 불량식품 상설 감시체제, 식중독 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개선 지원, 좋은 식단 자율 실천 등

○ 서민 주거복지 향상

- 2012년까지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30만호(매년 3만 2천호씩) 건설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 10% 확보
- 국민임대주택 : '03년 79,044호(3%) → '06년 174,144호(7%) → '12년 346,144호(10%)

여성들이 뜻을 펴는 사회,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듭니다.

○ 행복한 가족 만들기 추진

- 소중한 가족의 가치 보호와 가족해체 방지, 위기 가족 지원
 -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06년 6월까지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가족정책 및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재)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운동 전개
 - 기존 복지 인프라와 가족정책을 연계 추진

○ 보육사업 활성화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04년 48.4%→'06년 51%→'20년 65%)에 대비, 보육시설 확대·개선, 서비스 다양화
 - 경기도 보육지원 수혜자를 '03년 18만명에서 '06년 20만명, '20년 53만명으로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04년 41개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축, '06년 68개 달성
 -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 활성화 지원

○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 및 문화공간 확충

-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성 개발과 국제감각 및 복지증진 도모
 - 청소년종합예술제, 선진외국 청소년과의 교류 등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02~'05, 14,697백만원) 및 공부방 운영 활성화(128개소)
 - '06년까지 청소년수련관(15개소) 확충 및 청소년문화의 집(30개소) 조성 등

○ 여성들의 능력을 국가발전의 원천으로 활용

-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는 입체적 여성 인적자원 개발 추진
 - 경기도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36개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여성 IT·CT 전문교육 : '06년까지 총 1,760명 양성
 - '05년 「e-사이버 여성 센터」 구축·시범운영, Off-line의 한계 극복
 - “나도 여사장!” : 연평균 20개 업체씩 창업 보육 추진
 - '06년까지 총 25,700명 직업훈련

시장개방의 파고! 농촌과 도시가 손잡고 함께 넘습니다.

○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로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

- 밥맛을 좌우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개선,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 오리농법 등으로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생산
- 고품질 벼 재배 '02년 90% → '06년 100%, 한우 브랜드 15% → 51%, 돼지 브랜드 30% → 70%, 친환경 농산물 재배 4,673ha → 14,240ha

○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 농산물 직거래,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G-마크 인증, 사이버 장터, 산지유통센터 건립·운영
- 직거래 비율 '02년 31% → '06년 38%, 종합유통센터 2개소 → 4개소, 축산물 등급제 2품목 → 4품목, 산지유통센터 9개 → 16개

○ 개방의 파고를 넘는 도·농 상생의 농어촌관광 개발

- 전통음식의 관광자원화 슬로푸드, 녹색농촌 체험마을, 어촌체험 마을, 농어촌 정보화, 산촌마을 개발 등
- 슬로푸드마을 '06년까지 20개, 녹색농촌 체험마을 25개, 어촌관광마을 8개, 주말농장 330개, 산촌마을 12개, 팜스테이마을 18개소

지역간 상생! 경기도가 바로 원조입니다.

-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울수록 지역간 대립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현실
- 경기도는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할 한국 최대의 자치단체로서 대승적 사명감에 입각, 지역간 상생협력을 추구
 - 경기-충남 상생협약 채결
 - 평택·당진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공동 추진
 - 도로, 철도 등 SOC 확충
 - 접도지역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 경기-전남 상생협약 채결
 - 경기 조선백자-호남 고려청자 생산기술 공동 개발
 - 실학 관련 학술대회 및 실학교육 관광자원 공동 개발
 - 전국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협력을 추구